

“-이-”에 대하여

이 훈*

〈차례〉

1. 緒論
2. 本論
 - 2.1. 品詞와 範疇, 助辭와 語尾
 - 2.2. 用言說, 統辭的 接辭說, 敘述格 助詞說, 接語說
 - 2.3. ‘-이-’구문의 특징
 - 2.4. 형용사형 교착소
3. 結論

1. 緒論

본고의 목적은 學校文法에서 敘述格 助詞라 일컫는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검토 비판하고 ‘-이-’에 관한 文法的 範疇 설정을 ‘형용사형 교착소’로 확정하는 것에 있다. ‘-이-’의 문법적 범주 설정은 50, 60년대에 술한 논의를 거쳤다. 당시 논의의 주된 학설에는 敘述格 助詞說, 格語尾說, 指定詞說 등이 있다. 그 후 70년대 생성문법의 적용이 심화되면서 ‘-이-’를 指定詞로 보는 경향이 많아 졌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 문법 기술의 이론적 토대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 중앙대 강사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인 품사와 범주에 대한 논의를 우선 전개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제설을 비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의 문법적 범주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2. 本論

2.1. 品詞와 範疇, 助辭와 語尾

본고에서 국어 문법의 전통적 개념인 품사¹⁾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국어학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의 품사 또는 단어에 대한 엄밀한 확정없이 ‘-이-’에 관한 제 논의는 理論 內的인 混亂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의 문제는 국어 문법 기술의 여러 범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와 기술적 정의들이 중층 복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서술격 조사설이 가지는 이론적 含意를 살펴 보자. 서술격 조사설은 여러 가지 격 중의 하나로 서술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격은 일반적으로 敍述²⁾語³⁾로부터 할당받는다. 이 경우 서술어는 스스로에

-
- 1) 소위 품사론이 전통문법적인 연구방법의 하위 분야이므로 현대의 언어학에서는 그 가름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 현대의 문법기술에서 우리는 여전히 동사니, 형용사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나 어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 문법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 문법적인 품사론에서 조사나 어미는 취급되지 않거나, 조사만 하나의 품사로 인정되어 왔다.
 - 2) 본고에서는 敍述과 陳述을 구별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쓰이는 서술의 개념은 命題의 概念的 部分이다. 즉, “그가 밥을 먹는다”에서 그가 밥을 먹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반면 진술은 서술내용과 문장이 완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文尾를 통해 실현된 것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서술된 것들이 반드시 문장으로 완료되어 진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 3) 사실 서술어라는 용어의 사용은 後述하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언중들에 의해 재구조화되어 성분인식되는 것으로서의 의의는 있겠지만, 국어에서 서술어 개념의 사용은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킨다. 이와 관련해서는 졸고(2002)를 보라.

게 격을 할당하게 된다. 또, 名詞句 論項에 할당되는 것이 격이라는 通說에도 위배된다. 물론, 이 격의 문제 역시 적용하는 문법 연구 이론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격이 술어와 명사항의 관계로 한정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행(2000)에서와 같이 名詞相當語句가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통사-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정의됨을 전제하고 있다.

품사(part of speech)는 이향천(1996)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실재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부류 즉, 範疇(45)이다. 그렇다면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그 부류에 맞춰 나누는 것이 품사가 될 것인데, 품사분류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는 것은 무척 곤란하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체계가 전형(4)을 세우고 그 전형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의 부류로 취급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문법을 먼저 습득한다기보다 세계에 대한 언어와의 반복적인 일치과정이 선행된다. 이것은 생성문법이 설파하는 언어능력에 대한 반론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뇌구조가 언어 습득을 위한 물리적 장치들 가지고 있을 뿐 본래적인 언어능력을 타고 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⁷⁾

-
- 4) 한자어 範疇의 의미를 살펴 보면 範은 틀이나 본의 뜻이며, 疇은 부류나 종류의 의미이다. 이 말의 어원은 書經의 洪範九疇에 기원한다. 洪範九疇의 고사는 주 무왕이 기자에게 遷都를 물었는데 기자가 아홉 가지의 조목으로 대답했다는 것에 연원을 둔다.
 - 5) 범주와 관련한 최초의 근대적 논의는 칸트에서부터이다. 칸트는 “純粹理性批判”에서 판단의 형식에 따라 범주를 量, 質, 關係, 樣相의 綱目으로 나누고, 각 강목은 세 개의 항으로 나누었다. 이 범주들은 문장 층위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칸트 스스로는 세계에 대한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각 綱目이 나뉘는 분류의 기준을 찾기는 힘들다.
 - 6) 여기서 전형은 prototype이며, 프로토타입은 인간의 법칙화, 범주화 능력의 기본 기제로 작동한다. 보통 類聚分類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방법을 따른다.
 - 7) 유아들의 언어 습득 과정은 이런 면에서 많은 증거가 된다. 아기들은 자신이 들은 언어와 세상과의 일치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Piaget나 Putman 등의 認知主義者나 經驗主義 哲學者 등에 의해 生得的 言語習得 裝置는 비판되고 있다. 정동빈(1987, 1992) 참조.

이러한 사실은 문법에 있어 품사분류란 문장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들의 전형을 세우고 그 것에 따라 관련된 요소들을 분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傍證한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최근의 인지 언어학적 관점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본고가 상정하는 품사나 단어 등과 같은 문법적 범주에서는 그것에 포함된 요소들이 공통자질들을 완벽하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범주 자체가 지금까지의 문법- 특히 생성문법-이 주장하듯이 완벽하게 해석되고, 완전히 명시적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언어에서 다루어 지는 술한 범주들은 분명한 경계선에 의해 각각의 구역이 엄밀히 확정된다기 보다는 다분히 퍼지⁸⁾적이다.⁹⁾

품사에 대한 단일한 기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품사를 가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機能, 形態, 意味 등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품사론은 문법 즉, 문장 구성 요소의 기능적 관계 기술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더불어, 품사라는 범주 설정이 앞서 언급한 인지적 과정이며 퍼지적 절차

8) 퍼지이론은 기존의 인공지능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정확성에 대해 반대한다.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on/off, 1/0, 참/거짓의 극명한 이분법을 생명으로 하지만, 퍼지이론은 그렇지 않은 부정확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확성을 적극 활용한다. 기존의 if-then 문법과 다르게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며, 대략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와 모호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들에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인지활동과 유사하다.

9) 예를 들어 보조용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의 연구방법은 현시점의 공시태에서 보조용언의 목록을 추출하고, 이것이 보조용언이나 아니냐하는 분류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문법화의 단계를 밟든, 통사적 연어가 관용화 내지 어휘화 하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보조용언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어떤 것들은 완전히 보조용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진행중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이 역시 퍼지적 범주의 사례로 보다 원형적이며, 중심적인 것들과 주변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보조용언이라는 범주로 다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그렇다고 형태나 의미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최종 목적이 의미를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거나, 기능을 문법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의미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다른 기준들 역시 적절히 삽입되어야 한다. 즉, 주로는 기능을 중심으로 전형을 세우는 것이지만, 원형적 요소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은 주변적인 것들로 그 형태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광정(1987)에서는 품사분류에 관한 국어학사적 분류를 시도하면서 품사분류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삼았다. 여기서 조사는 屈折範疇과 어미는 活用範疇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표적 굴절어인 독일어 등의 印歐語가 가지는 격어미와 한국어의 조사가 다르다는 점에 국어학계의 일반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미는 어떠한가. 여기서 조사나 어미에 대한 품사설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조사는 선행요소인 명사 상당어구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어미는 선행요소인 용언류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분리성이 조사를 어미와는 다르게 단어로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분리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分離性은 自立性과 깊은 관계에 있다. 국어에 활용¹¹⁾의 기제를 최초로 확정하고 이후 많은 문법기술에 영향을 끼친 최현배(1937)에서는 자립적인 단어들을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가른 것이 품사라고 하고 있다.¹²⁾ 이의 영향인지 많은 문법서들은 이 분리가 어떤 이유에서 가능하고, 또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줄고(2002)에서는 최현배(1937)¹³⁾을 인용하여, 자립성

11) 본고는 국어의 활용에 대해서도 부정한다. 후술하겠지만, 국어의 어미는 독립된 교착소의 체계에서 문법적 기능 실현을 위해 교착 내지 첨가되는 것이지, 용언의 기본형이 어휘 내부에서 어형변화를 일으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12) “‘씨’는 말의 씨(語의 種)란 뜻이니, 곧 말을 분류하는 선자리(立場)에서 ‘낱말’을 이룸이다. ……낱말은 월(文)을 쪼갈라(分析해)놓은 낱덩이(單位)이다. ……낱말은 말의 낱덩이(單位)로서의 따로설만함(分立性)을 가진 것이다.”

13) “……여기서 낱말의 따로섬이라 함은 다른 말과 아무 관계 없이 제 홀로 따로 선다는 것은 아니다. 말은 항상 다른 말과 서로 얹히어서 실제의 담화와 글월을 이루는 것이 떼땀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낱말이란 것은 항상 제 스스로 한 낱

또는 분리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현배(1937)에서의 직관처럼 낱말의 구성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데 있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문법 체계 내의 어떤 요소가 음운적 실현 상 다른 요소에 기대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단어의 내적 구성요소가 아니라면, 분리되어 기술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통사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품사로서도 문법 범주로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형태, 통사 단위에 대한 분별의 기준으로 語彙的 應集性에 관한 논의가 있다. 어휘적 응집성(Lexical Integrity)은 Postal, P.(1969)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形態素 連鎖體에 관한 분석 진단의 기준이다. 어휘로 구성된 단위 즉, 형태 층위의 단위는 통사 층위의 원리들을 적용시킬 수 없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어휘적 응집성이 강한 형태소 연결체들은 어휘 내적 결합 즉, 어휘적 파생에 의한 형태 층위의 분석 대상이고, 응집성이 약한 형태소 연결체들은 어휘 외적인 결합 즉, 통사적 관계에 의한 통사 층위의 분석 대상이 된다.

Bressnan & Mchombo(1995)는 Postal, P.(1969)의 논의와 Simpson, J. (1983)에 제안된 기준들을 포함하여 새로이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우순조(1997)에서 Bressnan & Mchombo(1995)의 논의를 근거로 국어의 어간-어미 결합체들에 대한 응집성 진단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對等 接續 可能性, 語彙 內附 結束 制約, 句節的 歸還性, 空白化, 抽出 可能性 등의 기준을 통해 본 국어 어간과 어미의 응집성은 놀랍게도 아주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Pollock(1989)에서 분절 IP구조가 다루어진 이후에 국내의 생성문법학자들은 소위 굴절범주 및 활용체계를 독자적인 문법범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학자에 따라 조사구를 설정하기도

이 되어서, 다른 말과 떨어져, 여러 가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까닭으로 해서, 도모지 따로 설 수 없는 낱말이 없지 아니하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당소리로만 된 앞토씨(前置詞) s, v 프랑스의 je, tu, le 같은 따위이다. 이 따위는 제 혼자 따로 서는 일이 도모지 없으면서, 능히 한 낱의 낱말이 되는 까닭은, 그것이 다른 말들과 여러 가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완전한 한 낱말이요, 결코 다른 낱말의 구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격조사를 심층격의 음운론적 실현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조사 이상으로 어미를 교점으로 분리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어미류가 더 이상 어휘 내적 요소가 아님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

국어의 어미가 어휘적 단위가 아니라면, 이제 어미를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가. 여전히 음운론적 비자립성을 근거로 어휘 내부 요소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능과 어휘 내부 요소가 아님을 증거로 다른 문법적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단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개념에서는 조사와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인구어 단어 정의의 모태인 Bloomfield(1933)에서는 단어를 최소 자립형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단어가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통사론의 재료가 되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의 연구 즉, 단어의 내적 구조에 관한 연구는 형태론의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과 같이 문장에서 概念 表示語와 機能 表示語가 명백히 구별되는 언어에서는 어떠한가. 적어도 인구어의 단어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정도의 시도가 가능하다. 하나는 개념어들을 단어로, 문법기능어들을 문법형태소로 분리하여 국어의 품사를 몇 개의 어휘적 詞와 문법적 기능의 2辭 체계로 나누는 것이다.¹⁴⁾ 다른 시도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듯이 어미도 하나의 단어(적어도 한국어 문법의 체계 내에서)로 인정하는 것이다.¹⁵⁾ 이 경우 어미¹⁶⁾란 용어부터 버리고 새로 용어를 만들어야

14) 이런 시도는 유목상(1993)에서 엿볼 수 있다. 다만 유목상(1993)에서는 유목상(1986)에서 조사와 어미가 연결조건은 다르지만 기능이 같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미를 용언류의 어간에서 분리해내지 못하고 유착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유목상(1993)에서는 8辭 1辭의 체계로 품사를 가르고 있다.

15) 본고가 견지하는 입장은 교착소 역시 단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기존의 파생 접사들과 경계선을 적절히 구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의 허사들은 앞서 언급된 인지적, 퍼지적 절차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6) 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위의 논증과 같이 어미가 단어의 끝이 아니라면 더 이상 어미란 용어를 쓸 수 없다.

한다. 이미 임홍빈(1997)에서는 조사에 대하여 체언구 교착소, 어미에 대하여 용언구 교착소가 제안된 바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용어 상의 막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논의에 힘입어 본고는 ‘-이-’구문에서 어미부를 완전히 분리하고 ‘-이-’만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교착어로서 국어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사와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허사이다. 반면에 인구어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성 단위가 단어이고, 문법적 기능은 이들 단어의 구성형식인 형상에 의해서 드러난다. 한국어에서 단어의 개념은 때로는 잉여적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점을 밝혔고, 이제 ‘-이-’구문에 관한 제설을 검토해 보며 과연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국어 문법의 기술에 적절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用言說, 統辭의 接辭說, 敍述格 助詞說, 接語說¹⁷⁾

‘-이-’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두루 살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문법의 여러 층위 즉, 음운론적인 접근부터 시작하여,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접근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기원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통시적 연구도 다양하게 있어 왔다.

각각의 논의들은 세부항목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에 대하여 형태소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물론, 초기의 격어미설이나 접요소설, 조음소설 등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학술문법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정

17) 물론, 과거의 논의에는 격어미설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말의 체언과 조사와의 관계는 체언과 격어미로 이루어지는 굴절현상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학계일반의 동의에 의해 폐기되었다. 유목상(1962)에는 50, 60년대의 ‘-이-’에 관한 제설의 소개와 비판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송석중(1990)에도 이전의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다. 또 한 양정석(2001)에도 최근의 논의와 관련된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사설을 비롯한 용언설이다.

우선, 지정사설은 최현배(1930, 1937)에서 시작된다. 최현배(1937)에서는 잡음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잡음씨에 “이다”와 “아니다”를 설정하고 있다. 이후 박승빈(1935)에서의 지정사설라든가, 정열모(1946)에서의 형식동사설, 강복수(1963)의 형용사설, 서정수(1994)에서의 최현배(1937)과 유사한 지정사설 등은 모두 용언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GB이론에 입각해서 이다를 용언으로 설정한 양정석(1986, 1996, 2001)¹⁸⁾ 등이나 송석중(1991), 엄정호(1989, 1993)과 같은 논의도 있다. 더불어 서정목(1993)에서처럼 계사설을 주장한 논의도 있다. 용언설과 후술할 통사적 접사설은 서로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비판하고 재비판하고 있으며,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는 용언설의 문제점은 시정곤(1993)에서 GB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 ① ‘-이-’의 선행 명사구는 격표지를 갖지 못한다.
- ② ‘-이-’와 선행 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다.
- ③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
- ④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하다.

앞서의 양정석(1996)은 시정곤(1993)에 대한 재반론이다. 또한, 엄정호(1989, 1993)에 대한 반론은 특히 접어와 관련하여 고창수·김원경(1998)에 나와 있다.

통사적 접사설과 지정사설의 중간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소위 접어설이다. 오미라(1991)에서 ‘-이-’를 접어로 규정한 것이나 엄정호(1993)에서 형태론적으로 접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이-’에 관련한 가장 뚜렷한 대립은 지정사설을 포함하는 용언설

18) 다만, 양정석(1986, 1996, 2001)은 이다의 여러 구문 중 속성 명사형이 선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구조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임시적인 용언 단위를 구성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과 통사적 접사설이다. 서술격 조사설은 구조기술상 통사적 접사설과 유사하나, 문법범주상의 문제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에 의해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형태음소적인 불완전성에 착목한 접어설은 ‘-이-’의 접어적 성격만 양쪽 즉, 통사적 접사설과 용언설 모두에서 방증의 자료로 삼는다.

이제 ‘-이-’가 등장하는 실제의 구문과 더불어 그 특징들을 살펴 보고 가장 타당한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2.3. ‘-이-’구문의 특징

기존에 제시된 ‘-이-’구문의 특성을 2.1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제를 세워 하나하나 점검해보도록 하자.

① 모든 ‘-이-’의 기능은 선행 명사상당어구를 용언화 하는 것이다.

우선 ‘-이-’가 결합된 여러 구문의 유형을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양정석(1986)에 제시된 세 가지 경우의 예문을 살펴 볼 수 있다.

- (1) 두루미가 학이다.
- (2) 아카시아가 콩과 식물이다.
- (3) 가. 나는 경애가 최고다.
나. 그는 테니스 실력이 세계적이다.
다. 방안이 엉망이다.
라. 그는 매사에 성실이다.

양정석(1996)에서는 위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우선 (1)과 (2)는 구문상 다른 문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은 전후의 NP가 뒤바뀌어도 동일한 문장이나, (2)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어가 주체중심의 문장 구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증하지 않아도, 경험론적으로 우리는 “두루미가 학이다”라는 문장과 “학이 두루미이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의미를 가졌음을 안다. 또한, 문법 구조적으로 (1)과 (2)가 동일한 문장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두 문장 사이의 차이에 대한 기술은 앞 뒤의 명사항들이 가지는 어휘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이지, 통사론적으로 서로 다른 구문이라고 할 근거는 없다. 다만 (3)의 경우는 소위 느낌형용사 구문이 형성하는 주격 중출형 문장¹⁹⁾과 같이 구문 상 특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구절 구조의 귀환성에 의한 용언절²⁰⁾의 반복이라고 판단하면, 구문상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줄고(1998)에서는 이러한 반복적 구절 구성의 타당함을 통하여 이중주어 문장들은 용언절로 분석된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4) 앞선 현상은 뒤따르는 현상과 상관적이다.

(4') *앞선 현상은 상관적이다.

위의 (4)와 (4')는 양정석(2001)에서 재구조화된 형용사로 ‘상관적-’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선행하는 필수성분인 ‘뒤따르는 현상과’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한 용례이다. 그러나, 본고는 공동의 부사격이 몇몇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라는 설명보다, 더 직관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상관-’이라는 어근이 가지고 있는 어휘특성이며, 이 어휘의 요구하는 어휘항²¹⁾이 ‘공동의 무엇’이라는

19) 이중주어문인가 주격중출문인가의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주어는 용언에 속한 것인지 소위 서술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주어가 반복적으로 문장에서 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중주어문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0) 여기서 용언절 내지 서술절은 서술어미를 제외한 구절구조를 말한다. 주어는 동사구내에 포함되며 서술어미는 화자와 짝을 이룬다. 이 부분도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용언의 개념적 내용까지를 서술이라 하고 화자의 언급부분 즉 서술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술어미(문미라 해도 좋다.)로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어미란 용어 자체가 재론되어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점이다. 이는 ‘상관-’에 의해 단일방향으로 일어나는 통사적 연어²²⁾로 처리하는 것이 복잡한 재구조화나 재구성의 절차를 두는 것보다 용이하다. ‘상관하다’, ‘상관없다’, ‘상관-이’에 ‘공동의 무엇’을 나타내는 어휘항이 현저하게 공기함을 보아도 이것을 통사적 연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의 ‘뒤따르는 현상’이 ‘상관적이-’의 필수 논항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일은 어휘부의 특질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을 통사층위까지 끌고 오는 수고와 더불어 ‘-이-’의 기술을 단일하게 할 수 있음에도 선행 명사를 전형적 명사류와 속성적 명사류로 나누고, 속성적 명사류에 대해서만 따로이 어떤 문법적 조작을 가하여 국어 문법 기술을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속성적 명사류 일반에 대해서는 명사 자체에 서술성이 있다는 일반화가 가능하다. 실제 박선자(1983)과 같이 “‘풀이바탕’은 풀이말의 언어형식을 가지지 아니한 언어형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기술이 성립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사적 장치로서, 문의 완료 행위인 진술과 명제 내용의 끝부분인 서술(풀이)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이다.²³⁾ 명제 내용은 주체의 사건이나 상태에 관한 서술이다. 이는 분명히 의미론적이며, 이에 따라 술어에 의해 요청되는 논항들은 의미론적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다. 모든 타동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해당 타동사가 종결의 교착소에 의해 문장으로 완료될 경우에만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한 두자리 술어가 된다. 문장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언어 형식-구나 절-로 변환될 경우에는 화용적, 의미적 정보 상황에

21) 국어의 격은 다분히 의미론적이며, 술어에 의해 할당된다기 보다는 다른 명사항들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은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22) 연어와 관련해서는 김진해(2000)을 보라.

23) 박선자(1983)에서의 서술성은 서술과 진술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입장과 다르다. 이에 따르면 우리말 모든 용언에 서술력이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관형형으로 쓰인 동사조차도 절이며, 문장이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본고에서 쓰이고 있는 서술 및 서술성, 서술절 등은 그대로 용언의 어휘내용, 용언성, 용언절로 치환할 수 있다.

따라 논항이 하나만 필요할 수도 아예 필요없을 수도 있다. 이 때의 타동사와 관련 논항에 대하여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였다는 식의 설명²⁴⁾은 국어 화자의 인지적 과정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타동사의 논항 정보 역시 퍼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서술성 명사라는 것에 대해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류의 명사군이 통사적 연어를 구성하기 쉽다고 생각하며, ‘-이-’에서 촉발된 술한 어휘류를 만들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가 출현한 대부분의 전형적 문형은 별다른 차이를 두고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²⁵⁾ ‘-이-’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② ‘-이-’의 선행 명사구는 격표지를 갖지 못한다.

(5) 나는 학생이다.

엄밀히 말하면 실현형으로써 격표지뿐만 아니라 격 자체도 할당받지 못한다. 격표지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논자에 따라 국어 문법에서 여럿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²⁶⁾ 그렇다면(5)에서 “학생”은 어떤 격을

24) 생성문법이 표현해내는 이런 조작적 절차는 국어 문법에 대해 전혀 명시적이지 않다. 오히려, 국어 화자의 인지과정과 국어 문법학자의 직관을 벗어난 과잉된 조작이며, 그 명칭과는 다르게 생성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분석과 해석의 조작으로 보인다.

25) 다만 상징어들이 결합하는 구문은 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용환(1997)과 같은 논의인데, 상징어나 상태성을 나타내는 한자어 등은 ‘-이-’ 이외에도 “-하-”, “-거리-”, “-대-” 등과 쉽게 결합하여 용언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유사 구문과의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남순(1999)에서의 문답에서 나타나는 대응적 표현의 ‘-이-’의 경우도 통사층위가 아닌 담화 화용 층위의 문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역시 이 경우에도 기능은 같지만, 전형적인 용례들에 비하여 주변적인 ‘-이-’ 구문이다.

26) 양정석(1996)에서는 “그는 밤새 작업을 한 것 같다.”와 같은 예에서 “것”에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일종의 문법화로 분석 처리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ㄴ 것 같다”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법

받았을까. 용언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에 주격을 배당하고 있다.²⁷⁾ 당연한 귀추다. ‘-이-’ 결합체는 형용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용언설 (지정사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에서는 형용사의 선행 논항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형용사도 선행논항의 격표지를 항구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몇몇 음성실현의 조율상 문제나 ‘-갈-’ 등과 같은 문법화가 진행 중인 경우도 본래적으로 격표지의 실현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용언설이 가지는 가장 큰 난점은 여기에 있다.

송복승(2000)에서와 같이 ‘-이-’ 구문의 핵심적 의미 특성을 ‘동일성 지정’으로 압축하고, 이것은 ‘-이-’가 첫째 명사항이나 둘째 명사항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 특성이 아니며, 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둘째 명사항이라 하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생성의 관점에서도, 분석의 관점에서도 NP2가 NP1과 ‘-이-’에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NP1+-이+NP2+-이-’ 구문에서 술어로서 통사 기능을 하는 것은 ‘NP2+-이-’의 결합체이다. 음운론적 환경에 의한 생략의 경우나 강한 결합성을 가지는 몇몇 연어 구성을 제외하고, 국어에서 늘 조사가 결합된 명사항이 독자적으로 논항에 참여하게 되는 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⁸⁾ Jackendoff(1990)에서의 논의를 받아 들여 술어 중심의 기술을 시도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구문에서 술어로 판단되는 것은 ‘NP2+-이-’ 구조일 뿐이다. 술어에 의해 명사항에 배당되는 것이 격이라 하더라도,²⁹⁾ ‘이다’가 술어로서 선행하는 NP1과 NP2에 각각 격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NP2+-이-’결합체가 NP1에 격을 할당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국어의 문법기술에 보다 적절하다.

적 단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존 명사의 특성 때문에 일종의 연어구성이나 관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27) 엄정호(1993).

28) 모든 상황에서 부정격이거나 무표격이라면 그것이 과연 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29) 본고에서 격은 술어에 의해 명사항에 배당되는 의미역이 아닌, 명사항과 다른 단어들의 통사-의미적 관계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접어설에 관한 간단한 검토가 요구된다. 접어는 Spencer(1991)에 따르면 “완전한 단어의 특징들 가운데 몇가지 공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어로서의 독립성을 결여한 요소들”이다. 또한, Zwicky(1977)에서는 비격식적인 영어에서 음운론적으로 축약되는 것이다³⁰⁾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어의 ‘-이-’는 인구어의 접어와 그 성격이 틀리다. 또한, ‘-이-’하나만을 위해서 국어 문법 범주에 접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³¹⁾

③ ‘-이-’는 다른 조사들과 같이 연결 상태가 동일하다.

‘-이-’는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명사에 첨가되지만, 명사를 핵으로 하는 구절에도 결합하며,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 다른 조사의 뒤에도 결합된다. 조사들이 명사나 명사구이외에도 첨가되는 현상은 무척 일반적이며, 이는 한국어 화자의 의식구조가, 명사의 속성과 같이 개념화된 생각의 단위를 일종의 명사처럼 처리하는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³²⁾ 용언이나 접사는 이러한 연결 상태를 보이지 않는다.

④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

구개음화는 공시 통시를 막론하고 형태소³³⁾ 경계 내에서만 일어 난다.

30) In casual English pronunciation, ‘r and ‘m, reduced from her and him, are clitics, as follows: He sees ‘r. She met ‘m.

31) 물론, 김미영(1998)과 같이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를 접어화로 대치한 논문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접어는 보조용언 구성이 접사로 변화하는 중간단계로서 원용되어 있다. 오히려 통사적 접사설과 관련이 있는 논의다.

32) 즉, “종말의 시작은 99년에서부터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99년에서부터”를 하나의 개념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너가 아니고 너를이다”와 같이 메타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제외하고는 주격, 목적격조사와 “-은/는”, “-도”에는 첨가되지 않는다. 목정수(1998)에서는 통사적 제약에 입각해서 주격, 목적격조사와 “-은/는”, “-도”를 자연부류로 묶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6) 이 술이 그 술이나?

(7) 어머니는 술 이고 일하러 가셨다.

(6)에서 밑 줄친 두 개의 “술이”는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환경을 이룬다. 이 사실은 ‘-이-’가 적어도 (7)의 “이다”와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용언이 아니라는 중요한 반증이 된다. 양정석(1996)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의존명사 등이 음운론적 의존성을 가진다는 예를 든 바 있다. 물론, 음성실현에 있어서 실질적 개념어들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적어도 구개음화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용례는 없다. 이러한 현상이 ‘-이-’의 음운론적 의존성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적어도 다른 여타의 조사들과 자연부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더불어 과거의 모습이 용언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용언으로 볼 수 없는 증거라 하겠다.

⑤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하다.

‘-이-’의 생략은 보다 통시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유목상(1962)에서는 ‘-이-’의 고형인 “-이라”의 검토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유목상(1962)에 따르면, i 모음계열의 아래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형상 zero형으로 실현되나, 방점이 변화하여 [i]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이 소실되어 모음 아래에서 수의적으로 “이”가 생략된다. 그러나, 이는 음운 실현상의 문제이지 본래적 문제는 아니다. 이 것 역시 용언의 어간은 아니라는 주요한 반증이 된다. 용언의 어간이라면 생략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³⁴⁾ 또한 다른 격조사들처럼 전형적

33) 21.절을 상기하자. 여기서 형태소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의미의 단어 경계와의 차이를 말한다. 이 경계는 조사, 어미, 접사 등을 포함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조사, 어미를 단어로 인정한다면 형태소 경계라는 용어는 조사, 어미, 접사를 포괄하는 자연부류에 따라 새롭게 명명되어야 한다. 물론, 辭의 경계라고 해도 좋다.

인 용법에서만 생략이 되지 모든 상황에서 수의적인 것은 아니다. 관형형 구성 등으로 바뀌는 경우 “이”는 생략되지 않는다. 이승재(1994), 배주채(2000, 2001)의 논의나, 김성규(2001) 등의 논의는 생략과 관련한 ‘-이-’의 형태음소적인 의존성에 대해 논급하고 있다. 물론, 양정석(1996, 2001)에서는 시정곤(1993)에서의 지적에 대한 반론과 함께 이러한 형태음소적 의존성이 ‘-이-’의 의존성을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식의 형태음소적 의존성이 용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조사와 같은 교착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⑥ 기원적으로 ‘-이-’는 용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1994)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NP1이+NP2”가 그 자체로서 문장의 성격을 지니는 용례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구문은 “NP1이+NP2”의 형식에 직접 결합하여 종결이나 연결을 위한 형식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주격중출형³⁵⁾이라 일컫는 “NP1이+NP2이+-이-”의 형식도 다수 등장한다. 또한, 김정아(2001)에서는 차차표기 자료를 중심으로³⁶⁾ “NP1이+[NP2이+-이-]”의 구문이 기원적인 ‘-이-’구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대 국어가 명사문이었으며, ‘-이-’구문이 시작된 단계의 초기 모습이 “NP1이+[NP2이+-이-]”이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은 많이 있다. ‘이-’라는 용언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기원적 사실이 상당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문은 현대국어에 관련된 논의이다. 실제 최소한 15세기 이후의 국어사 자료들에서 ‘-이-’가 결합하는 선행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채용되는 용례는 찾을

34) 앞서의 “어머니는 술 이고 가셨다”에서 “이”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절대 생략될 수 없다.

35) 임홍빈(1974).

36) 특히 석독구결 자료.

수 없다.³⁷⁾ 기원적 구성형에서 ‘이-’라는 용언을 설정하더라도,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이것은 변화해왔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는 그 어휘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논항을 배당할 수도 없다. 즉, 고도로 문법화가 진행되어 우리말의 핵심적 교착소의 체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⁸⁾ 용언의 일반적 특성을 대부분 잃었다면, 더 이상 용언이라 할 수 없다.

문법화는 단일방향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단일방향성이라는 개념은 문법화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자립적인 형태가 의존적인 형태로, 어휘적인 범주가 문법적인 범주 쪽으로 변화하지, 그 역방향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용언이었다가 기능적 의미만 남은 교착소로 변화한 이상 그 역방향으로

37) 향가에서는 “이”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차자로 史, 伊, 亦, 摩只, 是 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史”자의 경우는 주격조사, 서술격 조사, 접미사, 처격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摩只의 경우는 『禮敬諸佛歌』에서만 보일뿐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자는 伊 자로 접미사, 주격조사, 대명사의 주격형, 인칭 불완전 명사, 서술격 조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음 훈차에 따라 다르게 쓰였겠지만, 주격의 연원으로는 ‘伊’자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비교언어학적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격조사 ‘이’는 기원적으로 3인칭 대명사로 쓰이던 ‘伊’가 정착하면서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술격 조사의 본체로는 차자 ‘是’를 보는 견해가 많다. 『朴通事諺解』나 『老乞大諺解』 등에서 살펴 보면 “是”의 번역으로 서술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두집성 등에서 서술격조사는 “是”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곤(1992)에서는 신라초기까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던 “이”가 그 이후 허사화하기 시작하여 향찰로 쓰일 당시에는 그 자취를 주격조사와 인칭의 접미사에 남기게 되었다고 하고,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여러 경우의 접미사로 발달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伊”는 허사화가 진행되면서 원의로부터 멀어 지게 되고, 훈차할 경우의 “是”와도 통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음차상 부득이하여 서술격 조사 “이다”에 까지 대응되기에 이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두에서는 ‘亦, 數是, 弋只’ 등이 구결에서는 ‘이, ㄹ’ 등이 향찰에선 ‘史, 伊, 亦, 摩只, 是’ 등이 표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주격의 ‘-이’와 서술격의 ‘-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동일한 자연부류(교착소)로 묶여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8) 이와 관련해서는 용언에서 문법화를 거친 다른 어휘들 ‘갈-’, ‘하-’ 등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역시 후고를 기약한다.

회귀는 있을 수 없다. 즉, ‘-이-’는 충분히 추상화되었기에 더 이상 추상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영진(1997)에서의 논의에 힘입어 용언의 문법화가 그 최종적 목적치로 어휘화에 이른다면, 먼 미래의 국어에서 ‘-이-’는 그 선행명사와 완전히 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³⁹⁾ 이러한 예측은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해 가는 언중들의 언어 사용행태에 달린 것인데, 그러나, 국어사의 여러 모습은 대조적인 양방향의 변화⁴⁰⁾를 증빙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화자의 음성실현상의 경제성만을 위해 ‘-이-’가 완전 소멸될 것이라는 일방향의 예측은 적절치 않다.

24. 형용사형 교착소

이상에서 몇 가지 전제를 통해 ‘-이-’구문의 특성을 살피고, 기존의 제설 중에서 용언류나 접어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설 중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통사적 접사이거나, 서술격 조사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설은 특성에 대한 파악에서 동일한 결과

39) 실제 ‘아니다’는 ‘NP+이-’ 구성이 어휘화를 끝낸 상태로 기술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의존성이 큰 의존명사가 NP로 참여하면 쉽게 통사적 언어구성을 이루고 그 중 ‘-르’ 것이나 ‘-르 터이-’와 같은 것은 어미로 굳어 지기도 하였다.

40)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라.

成煥甲(1985), “國語史의 對照的 樣相(1)-語形的 縮小와 擴大-.” 『중앙대학교 논문집』, 29.

_____(1987), “國語史의 對照的 樣相(2)-音의 同化와 異化-.” 『인문학연구』 14,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_____(1988), “意味의 具象化와 抽象化.” 『井山柳穆相博士 화갑기념논문집』,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연구원.

_____(1989), “國語史의 對照的 樣相(上).” 『중앙대 인문학연구』 16.

_____(1990ㄱ), “音韻의 脫落과 添加.” 『平沙 閔濟 先生 화갑기념논문집』.

_____(1990ㄴ), “音의 硬化와 弱化.” 『돌곶 金相善教授 화갑기념논문집』.

_____(1990ㄷ), “國語史의 對照的 樣相(下).” 『중앙대 인문학연구』 17.

_____(1991ㄱ), “意味의 縮小와 擴大.” 『玄山 金鍾埴 博士 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_____(1991ㄴ), “意味의 向上과 卑下.” 『陶谷 鄭琦鎬 博士 화갑기념논문집』.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형용사형 교착소로 ‘-이-’의 문법적 범주를 확정코자 한다.

우선 통사적 접사설⁴¹⁾은 두가지 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나는 접사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내부적 요소라는 강력한 인상이다. 이런 이유로 몇몇 논의들은 통사적 접사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어휘 파생 접사가 가지는 몇몇 제약을 근거로 통사적 접사설을 비판하기도 했다.⁴²⁾ 이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용어가 주는 二律背反性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통사적 접사설을 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사적 접사설이 국어 문법의 주요한 두 체계인 조사와 어미를 정당히 대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2.1.절의 논의대로 조사와 어미가 어휘적으로 독립된 즉, 어휘 내부적 요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그 형태적 의존성에만 매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조사나 어미들의 의존성은 단지 그것들이 어휘적 의미를 많이 상실했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또한, 다른 조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이-’를 새로이 어간파생을 위한 통사적 접사로 처리하는 것도 국어 문법의 규모를 복잡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고창수·김원경(1998)에서 언급된 통사적 접사는 어미활용을 가능케 하기위한 어간형성의 기제로 설명되고 있다. 계속 밝혀 왔듯이 본고의 논의는 어미가 기본형에서 여러 다른 형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정인승(1949)에서 시작된 서술격 조사는 어떠한가. 본고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졸고(1998)⁴³⁾에서 논의했듯이 본고는 서술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용언이 곧 서술어가 아닌데 ‘-이-’ 결합형이 어

41) 통사적 접사설에서는 조사, 어미, 파생접사는 모두 접사로 처리되고, 접사의 하위 분류로 어휘 파생접사와 구문접사에 해당하는 조사와 어미를 통사적 접사로 처리한다.

42) 목령수(1998)에서는 접사를 통해 생산되는 단위는 어휘임으로 “학생이다, 둘이다”등 까지도 사전에 등재해야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이준희(1996)에서는 어휘 파생에 적용시키는 “어휘 고도 제약”을 어김으로 잘못된 논의라고 한 바 있다.

43) 모든 용언이 서술어가 아님은 유목상(1993)에 논의된 바를 따랐다. 또한 용언의 이중기능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비판된 학설이다.

져 서술어가 되겠는가.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용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언어단위를 변동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것이 서술어가 되느냐 관형어가 되느냐는 어떤 어미가 교착되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남윤진(1996), 임홍빈·장소원(1998)에서처럼 ‘-이-’가 용언어미를 취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조사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실제 조사로 처리할 경우의 문제는 어찌하여 ‘-이-’조사만이 다른 조사와는 다르게 활용이 가능한가에 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고는 활용이 아닌 교착의 기제가 국어 문법에 속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어의 주요한 어휘 부류인 체언과 용언에 각각 유사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국어의 조사가 체언 상당어구에 교착되어 체언류를 문장에 참여시킨다고 하면, 국어의 어미는 용언 상당어구에 부가되어 문장에 참여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용언의 명사형어미 교착이 용언류를 체언화 시킨다면, 체언에 부착되는 ‘-이-’ 조사는 체언류를 용언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용언화 이후에 어미가 교착되는 것이다.

물론, 논의를 확장시켜 왜 ‘-이-’조사에만 용언구 교착소가 부착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것을 국어 교착소 체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본다. 체언구 교착소 중 부사격, 관형격, 독립격은 유목상(1993)에 따르면 형태론적 조사이다. 반면, 용언구 교착소 중 명사형, 부사형, 관형형 등의 어미는 형태론적 어미이다. 이러한 형태론적 교착행위는 파생접사에 의한 품사 전성이 어휘 고정화의 현상인 데 대하여 동적인 어휘 운용의 방법이다. 즉, 국어의 주요한 두 어휘 부류인 용언과 체언류는 다른 어휘 부류로 임시적이며 변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착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체언과 용언의 상호 변동을

44) 국어 교착소 체계의 대칭성에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체언류와 용언류의 상호 변동을 위한 형태론적 조사 외에 비슷한 범주와 체계내의 존재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조사와 연결어미, 보조조사와 보조어미(선어말어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위한 교착소 즉, 명사형 어미와 ‘-이-’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가 대칭적이며 안정성을 지향한다는 일반론에 따를 때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용언에 체언구 교착소가 첨가되기 위해서 명사형 어미를 취하듯, 체언에 용언구 교착소가 첨가되기 위해서는 용언화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⁴⁵⁾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이-’를 “형용사형 조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가 교착소인 점은 구문상의 특징인 본포와 자연부류에 의해서 살펴 보았으며, 그 기능은 체언 상당어구를 용언(특히, 형용사)으로 만들기 위해 형용사형 조사가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처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북한문법⁴⁶⁾의 바꿈토 중 “체언의 용언형토” 및 이승욱(1985, 1997)의 논의를 이어받아 체언 상당어를 용언형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기능하는 용언화소라고 ‘-이-’를 규정한 최정순(1991)의 논의와의 변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북한 문법의 “체언의 용언형토”는 토가 첨가되는 곳을 체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활용체계에 대한 관점이 본고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용언형토 자체에서 술력이 있다고 설명하는 점 등에서 본고의 형용사형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최정순(1991)에서는 ‘이다’를 동사도 아니며, 굴절체계의 것도 아닌 통사층위의 접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다르다.

다른 하나는 언어의 보편적 범주와 관련된 문제이다. 송석중(1990)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 학설들을 비판하면서, 언어 보편성에 입각하여 ‘-이-’를 계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과연 ‘-이-’는 영어의 Be동사와 같은 것일까. 물론 아니다. 계사는 다분히 논리학적 용어로서 두 개의 논항을 등치로 연결시키는 일을 해주는 것이 바

45) 물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범주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몇몇 주변적인 즉, 위와 같은 변동적 교체없이 직접 교착되는 것들도 있다.

46) 남 북한 문법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이주행(1994) 참조.

로 제사다. 논리학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제사는 인간의 사고 유형 중에 동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범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가 온다”와 “It rains”가 동의관계에 있다고 “비가”와 “rains”가 동일 문법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結論

지금까지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라 일컫는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검토 비판하고 ‘-이-’에 관한 문법적 범주 설정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하여, 국어 문법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1에서는 품사와 범주, 조사와 어미의 통사적 지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조사와 어미를 어휘 내부 요소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그에 따라 22에서는 기존의 지정사설, 접어설, 통사적 접사설, 서술격 조사설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23에서는 ‘-이-’구문의 몇 가지 특징을 점검해 가면서 제설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이-’구문의 특징을 ① 모든 ‘-이-’의 기능은 선행 명사상당어구를 용언화 하는 것이다. ② ‘-이-’의 선행 명사구는 격표지를 갖지 못한다. ③ ‘-이-’는 다른 조사들과 같이 연결 상태가 동일하다. ④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 ⑤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하다. ⑥ 기원적으로 ‘-이-’는 용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검증의 결과 서술격조사설, 통사적접사설 등이 본고의 결론과 유사함을 살폈다. 그러나 24에서는 서술격조사설과 통사적 접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용사형 조사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체언의 용언형토”와의 차이점과 언어 보편성에 입각해 제사와의 차이점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통사적 접사, 서술격 조사, 이다, 교착소, 용언화

참고 문헌

- 강복수(1963), “이다의 어성에 대하여-품사 설정을 중심으로-.” 『영남대논문집』 2.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 고창수·김원경(1998), “‘이다’는 동사인가?.” 『한성어문학』.
- 김미영(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 김진해(2000), 『언어연구』. 한국문화사.
- 김성규(2001), “‘이-’의 음운론적 특성.” 『국어학』 37, 국어학회.
- 김승곤(1992), 「국어토씨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국어학회.
- 남윤진(1996), “현대국어 조사 기술의 몇 문제.”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신구문화사.
-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호.
-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 배주채(2000), “국어사전에서의 지정사의 활용정보.” 『관악어문연구』 2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 국어학회.
- 송복승(2000), “‘이다’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 송석중(1990), “‘이다’논쟁의 반성.” 『애산학보』 10.
- 서정목(1993),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이유.” 『주시경학보』 11, 주시경연구소.
-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국어학회.
-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 _____(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 110, 국어국문학회.
- 양정석(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연세대학교.
- _____(1996), “‘이다’구문과 재구조화.” 『한글』 232, 한글학회.
- _____(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국어학회.
- 오미라(1991), “The Korean Copular and Palatalization.” 『어학연구』 27-4.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 유목상(1962), “이다(이라) 고.” 『어문논집』 2집,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 _____(1986), “국어의 활용체계와 어미분류.”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 _____(1993), 「한국어 문법의 이해」. 일조각.
- 이광정(1987), 「국어품사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남순(1999), “‘이다’론.” 『한국문화』 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승욱(1985), “체언의 용언화에 대하여.” 『어문연구』 13-2·3.
- _____(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이승재(1994),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주시경연구소.
- 이주행(1994), 「남한과 북한의 규범 문법」 『남천 박갑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_____(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 이준희(1996), “-이다’의 형용사적 특성.” 『한국학논집』 29, 한양대.
- 이향천(1996), “‘이다’의 범주.”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 이현희(1994), 「중세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 훈(1998), “‘아니다’, ‘되다’에 선행하는 名詞句의 文法的 處理에 관한 研究.”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_____(2002), “서술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5회 발표 요지.

- 임흥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 임흥빈 · 장소원(1998), 『국어문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정동빈(1987), 『언어습득연구』. 한신문화사.
- _____(1992), 『심리언어학-언어의 심리적 기저-』. 중앙대출판부.
- 정열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 정인승(1949), 『표준중등말본』. 이문각.
- 최용환(1997), “‘이다’와 ‘하다’의 실현의 상관성.” 『문학과 언어』 18, 문학과 언어연구회.
- 최정순(1991), “국어의 “NP+‘-이-’구성”과 ‘-이-’의 형태/통사론적 특성.”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기념 논총』.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1.
- _____(1937), 『우리말본』. 정음사.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Allen and Unwin.
- Bressnan & Mchombo(1995), The Lexical Integrity Principle:Evidence from Bantu.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 Pollock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 Postal, P.(1969), Anaphoric Islands, *CLS* 5.
- Simpson, J.(1983), *Aspects of Walpiri Morphology and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 Spencer(1991), *Morphological Theory*, Blackwell.
- Zwicky, A. M.(1977), *On clitic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Abstract

A Study On '-i-(-ㅇ)-'

Lee, Hoon

This thesis aim to make a gramatical category for '-i-(-ㅇ)-' that treated as predicational postposition. First of all, there was a argument with raising a foundational question about korean grammar. In chap. 2.1., part of speech, gramatical category, postpositions, endings are defined in different way from indo-european. And then, it is properly that postpositions and endings are not element of internal lexicon. In chap. 2.2., there are some introductions and comments about theory of copula, clitic, syntactic affix, predicational postposition. In chap. 2.4., the characteristics on the construction of a sentence with '-i-(-ㅇ)-' were presented. ① In all sentence with '-i-(-ㅇ)-' that's function is preceding NP to make declinable P. ② Preceding NP of '-i-(-ㅇ)-' do not has a case marker. ③ The state of linking of '-i-(-ㅇ)-' was exactly like as another postposition. ④ '-i-(-ㅇ)-' became to circumstance of palatalization. ⑤ '-i-(-ㅇ)-' is able to omission with phonetical circumstance. ⑥ The origin of '-i-(-ㅇ)-' is a declinable word.

Accordingly, 'verbalized agglutinative element' are sugested as gramtical category of '-i-(-ㅇ)-'.